

기관돋보기 | 청주상당노인복지관

올해 18주년... 어르신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지관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함께하며, 나눔과 섬김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노년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의 특화사업으로 환경보호 문화를 확산·실천하는 '생명수호사업',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예방교실',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사업' 등 어르신들의 전인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항목에서 5회 연속 모두 A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충북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청주상당노인복지관(관장 장선예)은 이웃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노인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각종 정보와 종합적인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복지관은 '노년세대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충북 유일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를 위한 시설 '미원돌봄의 집'이라는 분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드리고 있다.

복지관은 가입인원은 총 7,135명, 1일 평균 200여명 이상의 어르신이 여가 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이용 등을 위해 복지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33개의 노년사회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생명지킴이, 동년배상담사, 노인전문봉사단, 이동복지사업 등 지역사회상생과 노년세대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영양 결핍 문제와 지역사회 안에서 고립감이 심화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상당노인복지관 전경.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노년세대가 행복한 세상'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어르신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마음을 잇(eat)다라는 사업은 어르신들 주변 이웃을 '마을 활동가'로 위촉해 매주 직접 꾸린 쿠키박스(밀키트)로 요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동네, 우리 이웃'이 중심이 되어 관계 회복 계기 마련 및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사업이 끝난 후에도 함께 하고 싶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우리마을사업'으로 벤치마킹할 만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의미있는 사업이다.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의 특화사업으로는 자원순환과 재활용에 대한 환경 지식을 갖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생명수호사업'으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리배출 캠페인', 자원순환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역주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예방교실' 운영,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사업', 어르신들의 노후설계 방향을 찾아가는 '노후건설링 지원사업' 등 어르신들의 전인적 복지 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선예 관장은 "노년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연결성과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후원 등 사회참여로 고령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복지현장 속,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이에 고립되는 어르신은 더욱 많아지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과 이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어르신들과의 돈독한 유대관계 등이 지역사회에서 우수 사회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은 "풍부한 경험은 노인의 자량이고, 노인을 공경함은 젊은이의 자량이다."라는 관훈 아래,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목소리 경청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장 마련 등 사회 연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을 돕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건강, 자립과 교육, 문화적인 즐거움을 통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세대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생명수호사업 생명지킴이 활동으로 청바지를 재활용한 티코스터를 제작했다.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의 분관인 '미원돌봄의 집'에서 추석 명절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7일 옥천체육센터에서 제24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북사회복지대회' 개최

복지부 장관 표창 등 유공자 53명 포상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와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미숙)는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17일 옥천체육센터에서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부대행사로는 인생네컷 사진찍기, 장애인보호작업장 제빵 시식, 여성일자리취업상담, 옥천군 사회복지유관기관 홍보부스 운영 등이 함께 진행됐다.

김영석 회장은 "그동안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해온 사회복지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사회복지인들이 화합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미숙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헌신으로 사회복지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와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이번 대회를 옥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옥천군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충청북도지사 표창, 충청북도의회 의장 표창, 옥천군수 표창, 한국사회복

충북도,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진행

노인복지증진으로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충청북도는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6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회장 이명식) 주관으로 열린 이번행사는 김영환 도지사, 황영호 도의회 의장,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과 도내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인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기여자 및 단체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등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노인회 12개 지회의 경로당에서 배운 춤과 장

기로 축하공연 등을 하는 등 어르신들의 다채로운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환 도지사는 "여기 계신 분들의 역사가 충북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충청북도에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영상자서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한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며, "100세대에 걸맞게 충청북도 노인복지가 대한민국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게 도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의 날'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매년 10월 2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정진회계법인

김남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화 043-715-3321
 팩스 070-8244-3321
 이메일 ney1123@hanmail.net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49-1 (가경동 1201) 정진회계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련회계감사, 기장/세무대리 전문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 관한 조례' 개정

전입세대 축하금·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등 신설

단양군이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입세대 축하금,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 등을 신설했다.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는 세

대 당 50만원 이내(최초 1회 지원)로 지원하며, 초중고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한명당 20~50만원(각 학급별 최초 1회 지원)까지 지원한다.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을 신설해 관내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단양군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30년 후 소멸 위기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단양군은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신축아파트 준공,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입정책, 분교 및 폐교 위기 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지난 3개

월 동안은 인구가 증가하는 괄목적인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군은 지속해서 지역의 인구 증대를 위한 우수사례와 시책을 발굴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김문근 군수는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3만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실제 전입하는 세대는 물론 군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치매어르신 생활안전망 구축사업 전개

어르신 거동 범위 맞춰 안전장치 설치사업 추진



음성군은 거동이 불편한 치매어르신을 위해 생활 안전장치가 설치사업을 진행했다.

음성군은 거동이 불편한 치매어르신을 위한 생활 안전장치가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지난 11일 밝혔다. 치매는 인지·신체기능 저하로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일반 노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낙상을 방지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 치매안심센터에 안전장치와 함께, 등록된 치매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평

가를 한 뒤 어르신의 거동 범위에 맞춰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상반기에는 그동안 파악한 7가구를 방문해 안전 손잡이 14개를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20여 가구를 방문해 치매 안전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음성설성로타리클럽과 2022년 협약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치매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병태 보건소장은 "치매가 있어도 음성군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촘촘한 치매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지원 기준 확대

세 자녀 이상 30만원에서 두 자녀 이상 20만원 조정

진천군이 인구 증가를 위한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다자녀 가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자 진

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먼저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지원 기준을 확대하며, 현행 '부모와 세 자녀 이상'에

서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으로 지원 범위를 늘린다. 지원 금액은 '세 자녀 이상 30만원'에서 '두 자녀 이상 20만원'으로 조정한다. 이 외에도 대학교 프렌즈 지원 시책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만 나이 통일에 따른 나이

규정도 정비한다. 또, 공공기관 전입지원 대상에는 진천군청 직원도 포함하며,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만 3~5세 아동'에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변경한다. 국적취득자 군민등록 축하금 지원 적용 시점을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취득자로 규정을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진천군,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모든 암종에 3년간 연 최대 300만원 지원

진천군은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과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연중 추진한다. 성인 암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3년간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규 지원

은 중단됐지만 지난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은 사람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고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거나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3년간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5대 암은 위암·대장

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11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2500원 이하다. 소아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우선 선정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기준 충족 시 연 최대 2000만원(백혈병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043-539-7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청주시, '장애인 가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협약

저소득 장애인 가구 주거개선, 7000만원 후원 약속



청주시는 지난 1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장애인 가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는 지난 1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국제로타리 3740지구 서청주로타리클럽,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와 '장애인 가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법석 청주시장, 조성준 서청주로타리클럽회장, 최인석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

회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시설과 공간 개선 등 주택 전반에 걸친 수선으로 장애인의 이동과 활동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장애인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발굴과 추가 사업 연계 등 총괄, 서청주로타리클럽은 사업비와 물품 지원(7000만원)과 사업 수행,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는 자문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서청주로타리클럽은 장애인 4가구에 주거개선 20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개소의 식탁대리석 상판 교체에 5000만원을 후원한다. 개선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시설과 공간 개선 지원으로 장애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의 주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장애인 주거 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22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사로 보수, 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충주시, '찾아가는 건강한 일터·쉼터' 운영

직장인 대사중후군 검진

충주시가 오는 12월까지 직장인 대사중후군 검진 프로젝트 '찾아가는 건강한 일터, 건강한 쉼터'를 실시한다. 보건소가 장기간 반복되는 고된 업무에 지친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터에서 몸과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와이지원, 고용노동부 중추지청, 고용플러스복지센터 등 사업장에서 100여명이 참여한다. 보건소는 앞서 이들에 대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당화혈색소·체성분 검사와 신체계측, 건강 행동 설문조사, 마음건강 검사 등 사전 검사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 개인별



충주시보건소가 한 사업장에서 '찾아가는 건강한 일터, 건강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검진 결과에 맞는 운동과 식이 처방을 제공하고 1대 1 매칭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자들은 모바일 앱을 활용해 매일 운동과 식이·혈압·혈당·체중 관리를 하며 담당자와 수시로 온라인 소통을 하

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3040세대 직장인들에게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무료 접종 지원

제천시가 대상포진의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이력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

지 않고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신경을 타고 나와 피부에 발진, 수포 등을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대개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많이 발병한다. 이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발생률을 50% 가까이 예방할 수 있으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빈

도도 66.5%로 감소시킨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자격을 증명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해 제천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043-641-3233~5)로 문의하면 된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최소 3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정류 및 식용류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음료류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최소 30일 이전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신선식품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제빵류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은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옥천군, 치매환자 여성이 남성 2.6배 넘어

도내서 유병률 세번째 높아

옥천지역 치매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옥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역 내 치매환자는 154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여성이 1118명(72.5%), 남성이 423명(27.5%)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이다.

치매환자 연령대별로 보면

80대가 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408명, 90대 이상 202명, 60대 91명, 50대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옥천군 치매 유병률은 9.0%로 도내 11개 시·군 중에 보은군 9.8%, 영동군 9.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행정력이 미치는 한계 때문에 파악되지 않은 치매환자는 물론 치매 정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에 맞춰 군 보건소가 다양한 치매환자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주목받고 있다.

군 보건소는 홀몸노인과 거동 불편 주민 등을 위해 연중 '찾아가는 무료 치매선별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 경증 치매 등이 의심되는 주민을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시켜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상담 등을 받도록 안내해준다.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정밀검진비·약제비·물품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치료를 돕는다.

문화·보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간오지 마을 위주로 치매예방교실도 운영한다.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해 가족·이웃을 대상해 치매 전문

인력이 거주지로 찾아가 치매 진단을 위한 병원 예약·병원 검진을 동행하고, 처방전 확인·처방에 따른 약품 구매와 귀가까지 돕는 '치매 조기진단 동행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치매 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해 '신규 치매 파트너'도 모집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 본인과 가족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이웃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다양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주춤하던 인구 9월 들어 다시 반등

(단위: 명)

구 분	2022년 1월~9월	2023년 1월~9월	전년 기간 대비	증가율
총 계	5,800	5,839	39	0.67%
청주시	3,641	3,676	35	0.96%
충주시	675	714	39	5.78%
제천시	362	397	35	9.67%
보은군	66	49	-17	-25.76%
옥천군	83	89	6	7.23%
영동군	95	94	-1	-1.05%
증평군	125	175	50	40.00%
진천군	386	323	-66	-16.97%
괴산군	66	46	-20	-30.30%
음성군	249	223	-26	-10.44%
단양군	49	53	4	8.16%

출생신고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출생아 수 전년 대비 214명 증가, 도내 '1위'

증평군의 인구가 9월 들어 또 다시 증가세로 반등했다.

지난 15일 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증가 후 8월에 잠시 주춤했던 인구가 9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9월 기준 증평군의 주민등록인구는 3만7427명으로 전월 3만7407명보다 20명(0.05%), 전년 동월 3만7213명보다 214명이 증가해 연간 인구증가율(0.58%)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월에는 타 시도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39명이 많아 인구 순유입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출생아도 175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125명보다 50명(40%)이 증가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군은 인구 증가 요인으로 송산택지 개발 이후 공동주택 건설과 정주 여건 개선, 37사단과 13 특임여단 군인들의 꾸준한 전입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재영 군수는 "지방소멸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꾸준한 인구 증가는 군 개청 20주년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한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정책으로 더욱 더 큰 도시 증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은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실태 현황조사 실시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보은군은 31일까지 장애인 등의 이동 접근성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현황조사는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편의 증진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법률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공동

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이다.

보은군 조사대상 시설 수는 총 291개소로 직전 조사년도인 2018년 대비 27개소가 증가했다.

점검 방법은 교육을 받은 2명의 조사요원이 직접 장애인

등 편의시설 현황을 방문해 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부적합 건축물에는 시정·개선명령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며, 군은 이번 조사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괴산군, 내년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관내 장애인 25여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괴산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수월이었던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한다.

괴산군은 지난 8월 실시된 심사에서 시설 벤치마킹 및 장애인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18억원 중 국도비 6

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4년 완공을 목표로 괴산을 제월리 925, 926-1번지(괴산대제산업단지)에 연면적 530.71㎡ 규모로 신축되며, 찻 채소, 건나물 가공 등을 주력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내 장애인 25여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근로소득을 증대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활 의욕을 북돋아 주는

등 괴산군 장애인의 요람으로써의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또한, 직업 적응능력과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과 안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기는 데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현 군수는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되면 단계별 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지역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괴산군은 ICT 기술을 활용한 '취약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 230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차세대 장비 230대 추가 설치

괴산군은 ICT 기술을 활용한 취약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 230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가스·활동량을 감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군은 당초에 계획했던 100대보다 130대를 추가해 총 230대를 설치했으며, 현재까지 총 885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응급관리요원 2명으로는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보조금 외에 괴산군 자체 재원을 투입하며 응급관리요원 1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한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8건, 올해 48건의 응급호출이 발생해 119구급대 또는 응급관리요원이 출동한 바 있다.

한 어르신은 취침 중 저혈당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왔으나 응급호출기를 눌러 119구급대원이 출동하며, 인근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낙상, 여름철 식중독, 장염, 원인 모를 통증 등 응급호출기의 도움을 받은 사례, 연기 또는 화재가 사전에 감지돼 큰 사고로 번지지 않게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 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있어 자주 와보지 못하는 부양의무자들에게도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영동군, 인공지능 돌봄 스피커 지원사업 '호응'

5개 치매안심마을 70세 이상 노인에 돌봄 스피커 보급

영동군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돌봄 스피커 '아리아'가 지역 노인들 사이에서 따뜻한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군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1년의 대역 기간 동안 공촌1리, 산이리, 비탄리, 탑선리, 임산2리 등 5개 치매안심마을에서 운영되며 각 마을별로 20대의 스피커를 제공했다.

이 사업은 각 치매안심마을의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화서비스인 두뇌톡톡, 기억검사, SOS기능, 음악감상, 감성대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기억력의 유지와 향상을 지원하고 사용자들과의

감성적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5개 마을에 시범 운영 중인 스피커는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돼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또 영동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9월 '감성 친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스피커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뜨개옷을 스피커에 입혀줬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치매파트너'인 자원봉사자들이 대상 노인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스피커에 뜨개옷을 입혀줬다. 스피커 다양한 기능을 통해 기억력의 유지와 향상을 지원하고 사용자들과의



인공지능 돌봄 스피커 '아리아'

졌다.

이를 통해 스피커가 더욱 친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게 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없이 스피커를 사용하도록 돕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돌봄 스피커 사업을 추진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 관리와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 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고독사, 5년간 1만8000명 육박

사회적 고립 막기 위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필요

고독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323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4842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독사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통해 추측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8월) 총 1만7473명에 이른다.

지난 2019년 2655명을 기록한 뒤 2020년(3136명), 2021년(3603명), 2022년(4842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와 올해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사망자 중 40세 미만은 약 2%, 나머지 98%는 모두 40세 이상의 중장년, 고령층이다.

특히 1인 고령 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199만3334대를 기록해 전년(187만5270세대) 대비 11만8064세대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질병에 취약한 고령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에 미치지 못했다.

김민석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 중인 어르신 중 약 86%가 간병인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간병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물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월 4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통해 간호간병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병원 완결형이 아닌, '지역 완결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소득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시술비 지원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 이하 난임부부 * 2인 가구 622만원, 3인 가구 798만원
개선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난임시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 기준 개선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횡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폐 시 지원 확대 등이었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차별로 지자체들도 민원에 시달리자, 지난해 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의장협의회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난임부부를 소득으로 차별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

라는 본래 목적에 방해가 된다"며 "정부는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에 대해 소득, 연령, 횡수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수업 복지부 인구가동정책관은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난임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난임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에게는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충북 충주, 제천 포함)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

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충북은 충주·제천운영센터(☎043-849-7784, ☎043-922-0174)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열린섭 노년정책관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교원침해 대응, 긴급 직통전화 '1395'

운영업체 공모 거쳐 내년 1월 본격 개통 추진

(국번없이)

1395

2024년 1월 개통 예정

- 교원침해 사안 신고
- 법률상담지원
- 마음건강진단
- 치료 프로그램 안내

교원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원 대상 특수번호인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원이 악성 민원 등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교원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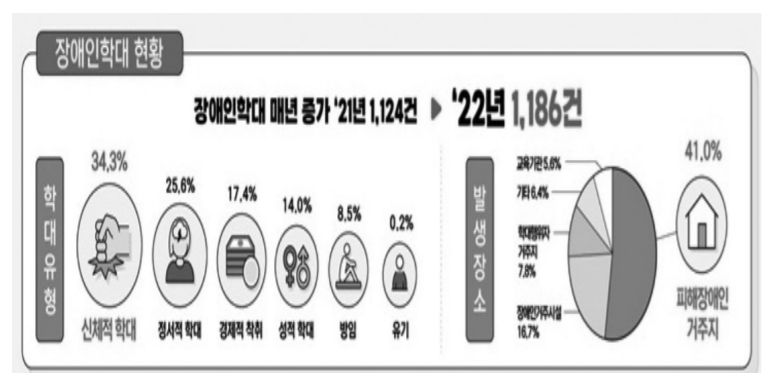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원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 민원, 행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하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원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전년 대비 5.5% 증가

복지부,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2년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

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 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대비 지난해 전체 신고는 35.5% 증가했으며,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늘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곳(충북)을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학대 대응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경로당 취약시설 안전체계 구축 MOU

복지부-국토부, 3000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술·인력·비용 지원 등으로 더욱 강화되어 위험시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점검대상 시설수가 과다하여 안전관리상 문

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000명(누적)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18만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일지리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인일지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 강화,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결과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안전유리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의 국정과제를 동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2700억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000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했다.

조규홍 장관과 원희룡 장관은 "이번 협업을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의 안전이 확보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약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시각장애인 위한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

충북도·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등 400명 참석 지팡이 전달·현장낭독·복지증진 기여 표창 등

충청북도와 충북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회장 박상재)는 지난 12일 청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박상재 충북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장을 비롯한 시각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흰 지팡이의 날은 1980년 10월 15일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선포한 날로써 올해로 44

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흰 지팡이의 날 현장낭독 및 흰 지팡이 전달식이 진행됐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자립지원 등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도민 2명에 대해 충청북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충북도 이재승 보건복지국장은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흰 지팡이'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각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지난 12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제44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서로에 대해 편견 없이 소통하는 '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하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6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3년 나래핀 축제'를 열었다.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소통의 장 '나래핀 축제' 성료

장애 체험·먹거리 부스 등 즐길거리 다채

증평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찬연)은 지난 6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3년 나래핀(나래를 펴서 하늘을 날아라) 축제'를 열었다.

행사는는 지역주민, 복지관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체험 및 홍보 부스 운영, 2부 기념식, 3부 노래

품과 장애인식 개선 작품 전시가 행사장 한편에 마련돼 축제 참가자와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다.

2부 기념식에는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정찬연 관장의 개회사, 이재영 군수와 이동령 군의장, 박병천 도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3부는 노래자랑과 공연(장구, 테너, 난타 등)이 진행돼 축제의 마지막을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며 마무리했다.

정찬연 관장은 "나래핀 축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군수는 "장애는 불편함일 뿐 더 이상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세상을 향한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증평 100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증평형 복지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노인복지관,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인사 효잔치' 진행... 노인 1000여명 참석



단양노인복지관이 노인의 날을 맞아 소노문 단양에서 어르신 1000여명을 모시고 '구인사 효잔치'를 개최했다.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산하 단양노인복지관(관장 최은하)이 노인의 날을 맞아 소노문 단양에서 어르신 1000여명을 모시고 '구인사 효(孝) 잔치'를 진행했다.

구인사 효잔치는 대한불교 천태종이 주최하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산하 단양노인복지관, 단양장애인복지관, 단양노인보급자리, 단양노인전문요양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이 행사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의 라인댄스, 합창, 난타 공연과 초청가수 우연이, 지역가수, 단양어린이집 아리랑 치어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박덕수 총무원장 등 구인사 스님들과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해 조성룡 단양군 의회의장 등 30명의 내빈과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포함해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양군의 42개 지역업체들의 후원 덕분에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다.

최은하 관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감동이었다"며 "이런 행사를 만들어주시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박덕수 총무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단양노인복지관에 대한 다양한 소식은 단양노인복지관 홈페이지(<http://danya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으로 지난 14일 '2023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주민 하나된 어울림 한마당 호응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

장애인 and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빛트락에서 행복나눔 '2023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난 14일 청주시방법원, 검찰청 앞 도로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현숙)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중석)이 공동 주관해 진행했다.

또한 두꺼비마을신문, 산남오너즈, 산남행복교육공동체, 산남

동작은도서관협의회, 공공디자인 이즘, 꼬마라동아리 하나해, 두꺼비살림, 하울링, 국제키비탄 고인클럽 등도 함께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다 풍요로운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

음악봉사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개회식, 빛트락상 및 행복나눔상 포상, 참여 부스 운영, 공연, 먹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청주시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매해 발전하길 바란다"며 "청주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빛트락에서 행복나눔 '2023 어울림한마당'은 청주시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화합의 장이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

청주시주거복지센터가 지난 19일 청원구 울봉로202번길 66-2(옛 울량119안전센터)로 확장 이전했다.

시는 이날 이범석 시장, 임은성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성남 충북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복지 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담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전경.

당하는 주거복지 전담기관이다.

시는 2019년 5월 상당구 방서동 문화체육회관 1층에 공간을 마련하고 도내에서 최초로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해 운영해 왔지만 협소한 시설로 사업 추진에 어

려움이 있었다.

시는 울량119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건물을 확보, 총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6월 시작해 9월 준공했다.

시는 저장강박구구 지원 '깔고미봉사단'운영,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디딤하우스'운영, 학대피해 아동 주거환경 개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해 매월 주거복지 교육과 찾아가는 상담 등 증가하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선배시민 '꽃오빠 봉사단'이 지난 18일 지역 내 재가 장애인 및 어르신 157구에 특식을 지원했다.

보은에 선배시민 '꽃오빠 봉사단' 떴다

지역내 어르신에 특식 지원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종분) 선배시민 '꽃오빠 봉

사단'이 지난 18일 지역 내 재가 장애인 및 어르신 157구에 직접 요리한 돼지갈비찜과 훈제오리 무쌈을 전달하여 따뜻한 이웃사

랑을 실천했다.

꽃오빠 봉사단은 만 60세 이상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복지관 내 경로식당 배식봉사와 특식지원, 지역 내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날 특식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평소 요리해서 먹기 어려운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전달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안부도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박종분 관장은 "꽃오빠 봉사단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을 하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www.043w.or.kr

정답은 충북복지넷!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 · 발표

생계 ·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등 추가 혜택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다인 · 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기준 중위소득의 47%→50%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근로 · 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 생계급여

①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60% 등)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②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③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하는 제도

④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기준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

⑤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

⑥ 재산의 소득 환산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일반재산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재산 월 100% 적용

⑦ 생계 ·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생계 ·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빈곤층

⑧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하는 금액

의료급여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질병 ·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비급여 및 상한제 적용 제외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② 건강생활유지비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투약 포함)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000원(연7만2000원)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의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주거급여

①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② 침수방지시설 지원

주택조사 시 지하층 거주 여부 및 침수피해 이력을 조사하고, 해당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는 수선공사 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등

교육급여

① 최저교육비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

②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 제공'이라는 교육급여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을 기존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

자활급여

①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자활근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조건불이행 시 본인의 생계급여 삭감

② 자활기업

자활근로 참여자가 독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체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1/3 이상(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일 때 자활기업으로 인정

③ 자활인프라

자활근로 · 자산형성 지원사업 · 자활기업 지원 및 자활교육상담 등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1개소), 광역자활센터(16개소), 지역자활센터(250개소) 운영 중

④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교육 · 주거 · 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①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② 의료급여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 실화를 병행한다.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 · 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 수급권자 수, 질환 정도, 건강관리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한 업무분석 연구 추진

③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초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 공사비 재계축 등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 고려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등

④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2024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② 재산기준 완화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하여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c 미만→2000cc 미만)한다.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화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수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화하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

④ 긴급복지 지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불가상충물을 반영하여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

* (1인) 2023년 62만3300원→2024년 71만3100원, (4인) 2023년 162만200원→2024년 183만3500원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① 근로유인 강화

취 · 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 ·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층 대상 근로 · 사업 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②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 · 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서적 자활) 지표*'를 시범 운영한다.

* 참여자의 정서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2021년 개발, 자활의지, 근로장벽, 자활행동영역으로 구성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 · 경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③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한다.

참여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 · 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① 제도 관리 내실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 · 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②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의료급여 상한일수* 상정 시 외래 · 입원 · 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한다.

* (현행) 중증 · 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③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안착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 · 배포하고, 바우처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수급자의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④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 · 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⑤ 조류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속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라면서,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주거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을 인화

월 100% → 월 4.17%

2023년 →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초등학생 '23년 415천 원 → '24년 461천 원

중학생 '23년 589천 원 → '24년 654천 원

고등학생 '23년 654천 원 → '24년 727천 원

장애인·어르신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제공 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73개 시군구 연간 6백 명 → 228개 시군구 연간 2천 3백 명

2023년 → 2024년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2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청년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24세 이하 → 30세 미만

2023년 → 2024년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 원 추가 확대

40만 원 → 60만 원

2023년 → 2024년

공 통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23년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

'24년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23년 3급지/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24년 4급지/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복지광장

충북사회서비스원의 쟁점과 정책과제



연 명 모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지난 6월1일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였고,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출발을 했다.

더구나 다른 시·도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당시 도단위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복지재단이 이름만 바뀌어 사회서비스원을 개원했다.

그러나 충북은 기존의 도단위 복지재단이 전무한 가운데 말 그대로 모든 조직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만드는 설계를 해야했다.

지난 지방정부 12년 동안 충북도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민간 중심의 바꾸어

통한 수요창출과 개방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한 '시장화가 지방정부의 복지공급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영세 제공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을 초래하여 사회서비스의 중복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전문성 부족, 사회서비스의 질적 문제 등을 야기시켰다.

이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토대로 충북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정책 목표로하여 민간시장의 중복된 서비스의 영역과 장기요양의 비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영역에 표준적인 기준과 매뉴얼을 제시해 모범적인 충북형 운영 모델을 개발해야한다.

이는 충북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안정성, 사회서비스의 합리적 가격과 수익구조, 표준적이며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전략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정책 목적은 서비스의 통합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영역간(복지, 고용, 보건, 주거 등) 민관, 민민 협력, 시군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기폭제를 만들어야 한다.

충북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그제도 설계 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 충북도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지역중심형 시스템'의 작동이 정책 실현의 필수조건이다. 이

러한 쟁점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로, 공적 책임성 강화와 서비스 공공성 전략 추진이다.

충북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충북 전역에 AI돌봄서비스체제를 암반하여 위기에서 24시간 안전시스템 구축, 공공의료기관·공적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최일선 관문(GATEWAY)에서 함께 상담, 진단기능 및 정보접근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 사회서비스 전문성 교육을 공공, 민간 기구에 실시하여 사회서비스의 커뮤니티케어 확산을 공공, 민간 기구간의 전문적인 협력 시스템, 시설 기능을 완비하고, 지역공동체의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로, 충북의 사회서비스는 이제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와 기술이 상호 결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리빙랩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혁신과 인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IT기술 활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복지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복지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노인, 장애인 신체적 사회적 예방 서비스 구축을 통해 안전, 돌봄 대응력 향상과 사회서비스

의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넷째로, 충북의 사회서비스 관리 혁신을 위하여 집행되는 포괄 보조금은 업무성과 기반의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집행률' 중심의 재정관리에서 '결과, 도민의 '고객 만족' 중심의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충북도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예산에 대한 통합 재정 체계 운영을 통해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중심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을 개발하고, 사회서비스 예산을 종합적으로 계획화함으로써 유사 기능의 사업을 패키지로화하여 선택과 집중하는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군 단위의 지역적 사회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충북형 지역전달체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충북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쟁점과 정책 과제들이 추진될 때 지난 지방정부 동안 민간 기구에 의존해 온 충북의 사회서비스 개발사업과 대상영역들이 자리매김하여 공공성 강화와 개별서비스의 포괄성과 통합성 향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전반적인 충북의 사회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건강칼럼

“더 아름다운 미소를 위한 치주 건강 : 치주질환 예방과 일상 습관”



박 노 빈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구강보건센터 2차과장

다양한 구강질환은 통증을 유발하면서 치료 초기부터 완치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

또, 임플란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중 대부분은 치주 질환이 심해진 경우가 많다.

성인 4명 중 3명에서 평생에 한 번 이상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흔히 풍치라고 알려져 있는 치주 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인 치주골, 치은 등에 생긴 염증을 의미한다.

치주 질환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진행되며 어느 정도 질환이 진행된 후에야 자각증상이 생긴다.

자각증상이 심하지 않아 식사를 하기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치과에 내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증상이 생긴 후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 이미 치조골 소실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발치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말했다시피, 증상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성인들은 치주염에 이환된 상태이며 치과 내원 없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치아 상실의 제일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유지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

치주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세균 덩어리인 치태와 치석이 다. 식사 후 치아를 보면 음식물이 얇게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은 음식물은 칫솔질에 의해 치면에서 탈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구내 세균과 동체 치태를 형성하게 되고, 치태가 타액 성분과 함께 오랜 시간 경과되어 석회화되면 치석이 된다. 치태와 치석에는 많은 수의 세균이 존재하며 세균의 독소에 의해 치주 질환의 증상이 유발된다.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치주 질환의 증상으로는 양치 시 피가 나는 경우, 잇몸이 붓고 아픈 경우, 구취, 치아가 들떠있는 느낌 등이 있으며 이 같은 자각 증상이 있을 경우 상당 부분 질환이 진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주 질환의 치료는 원인인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여 치주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흔히 치료에서 받게 되는 스케일링이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스케일링은 잇몸 상방의 치석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며, 만약 치주 질환이 심하게 진행되어 잇몸 안쪽으로도 치석이 생겨 있으면 스케일링만으로는 치석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초기에 진료를 받고 진행을 더디게 하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방법은 식사 후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치간칫솔 등의 구강위생관리용품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치아 사이사이는 일반 칫솔로 양치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치실, 치간칫솔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치주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칩 분비가 부족하면 충치, 잇몸질환이 생기기 쉽기에 오래 씹어 칩 분비를 늘려 예방하고,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와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어 양치한 뒤 손가락으로 잇몸 마사지 등을 통해 일상생활 건강 습관으로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다. 또,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치주 질환을 악화시키므로 가급적 금연, 금주는 것이 치주 질환의 예방에 좋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었던 상황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경우 마스크 아래 구강 위생을 더욱 신경써야 된다. 마스크 착용 시 세균 증식이 쉬우므로 조금 더 각별히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치주질환은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정기적인 치과검진 및 스케일링을 통해 건강한 구강 위생 습관을 유지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다.

현장의 목소리



박 인 주

충북사랑의열매 모금사업팀 주임

“코로나로 인해 사업에 크게 실패한 후, 커다란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이혼을 하고 가족들과 멀어지게 됐어요. 몸도 좋지 않고 상황도 이렇다 보니 우울증도 심해지고, 돈도 없고 사람들도 모두 잃었어요” 혼자 사는 한 50대 1인 가구 남성이 인

근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최근 상황에 대해 말한 내용이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욱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들 1인 가구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그 심각성이 이미 사회 전체로 확산하였고, 이로 인한 고립사

가 수면 위로 올라와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이 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의미 있지만,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곧바로 고립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고립사 해결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긴급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월 15일 캠페인을 출범해 47일간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사랑의열매 17개 시·도 지회에서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일제히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 및 사회 재난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과 엔데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일명 '가려진 이웃'인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지역 내에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뜻한 이웃들의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의 모금액은 약 637억원이다.

캠페인에는 이웃들을 비롯하여 전국

함께하는 세상

광역·기초 지자체장 20여명이 참여한 지역사회 모금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 기관은 고립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장기간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거나, 가족이 있어도 가족 역시 경제적으로 힘들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까지 잃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매우 힘들어했다”며 고립 1인 가구의 문제는 전 지역에서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사연은 다르지만, 개인마다 겪는 다양한 생애과정 속 문제들이 정보단절과 은둔, 취약계층 등의 문제와 동반하여 고립을 초래하고, 특히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청년층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캠페인에 동참해 준 우리의 이웃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일상회복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져서 기쁘며 앞으로 나눔의 가치를 알고 실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잠시 경제의 늪에서 긴 터널을 걸어가는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여러분의 관심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할게요. 항상 건강들하시고 일과 가시

는 발길 늘 흥분이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손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어쩌면 사회적 고립문제의 해법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동네 살면서 모르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서너 번 정도 만나면 한 번은 눈인사하고, 또 서너 번 지나면 안녕하시냐 물어도 보고, 그래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들여다봐야 혼자 죽어 사람이 없지는 기라”라고 했던 어른들의 말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일수록 인기척을 내야 한다. 내가 혼자자 아니고, 당신이 혼자자 아니라는 인기척, 코로나 시대에서 벗어난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한다.

개인 가족 사정으로 인해 1인 가구로 혼자 살아가도 어려움이 있을 때 부탁할 이웃이 있다면, 혹은 지역사회에서 ‘당신이 혼자자 아니라는’ 지속적인 인기척을 내는 관심과 긴급지원 체계가 작동한다면 이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 캠페인'의 성공적인 진행으로 전달된 후원금이 취약계층 방방비 지원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정 긴급 생계·의료비 등으로 지원되며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웃과 함께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려는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똑똑똑! 법률상담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달의 법률상식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의 정도 완화한 대법 판결에 관하여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최근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른바 폭행, 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사건에서와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 뒤 성추행을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중전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함으로써 처벌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유지되어 오던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폐기된 것입니다. 사실 그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급심판단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대법원이 종전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판 실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판단기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행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새로이 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일용 사건 직후의 저항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등으로

2차 피해를 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항거 곤란"을 기준 삼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된 사실을 잘 유념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애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언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 이러한 법적인 피해에 직면했다면 강제추행피해를 방지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 예고

'장애아 돌보미 명의 대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신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67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해서는 안되며,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 19300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8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장애아 돌보미 명의 대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신설(안 별표)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자협회, 2023 멘토 모집]

- 사업명: 2차년도 사회복지종사자 및 기관 역량강화 지원사업(무지개 복지마스터 멘토링(컨설팅)사업)
- 모집분야 및 인원: (전문)멘토, (신규)10명
- 자격기준: 충북협회 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2023년 연회비 납부자로서 ①현재 사회복지사(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통주제(4개영역)활동 가능한 7년 이상의 유경험자, ②해당 주제 자격증 보유자, ③해당 주제 대학(교)교수, ④특별영역(주제)현장 유경험·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경험 전문가 7년 이상인 자, ⑤충북사회복지자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기간: ~2023.11.10(금) 17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추가서류 포함) 작성 후 협회 이메일(cbasw2213@hanmail.net) 제출(충북사회복지자협회 홈페이지→협회 소식→다운로드)
- 문의처: 충북사회복지자협회(043-232-2312, 2290)

- [2023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방송서제 지원사업]
- 사업목적: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가정을 방송으로 소개하고 모금된 기금으로 가정의 자립을 지원함
- 사업기간: 2023. 1. ~ 12.
- 지원대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

- 어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및 일반저소득), 가족구성원 모두 방송출연 동의가 된 가정(방송 출연 시 모자이크 불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18세 이상인 경우, 협의 가능), 최근 2년 이내 방송 출연이력 없는 가정
- 지원내용: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보육비 등 아동가정 욕구에 맞게 지원)
- 지원방법: 방송출연 및 온라인·오프라인 모금 진행을 통한 모금액 지원
- 추천기간: 매일 말일(연중 접수)
- 추천방법: 이메일 신청
- 참고: www.bokji.net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2023년 사랑의 난방비 사업 안내]
- 참여대상: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대상: 개인 50만원/시설 150만원
- 신청방법: MBC라디오 여성시대 게시판(www.imbc.com) 사연 접수
- 지원대상자 발표: 2023년 12월 8일(금)
- 난방비 지급: 2023년 12월 12일(화)
- 문의: 1551-2026

- [월정어린이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상시 공모]
-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만15세 이하 초·중학생 및 영유아

- 지원내용: 지원 아동의 질병 치료에 요구되는 일체의 의료 비용(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주사비 등) *제외: 치과치료, 발달장애 치료(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등)
- 지원금액: 개인 최대 200만원
- 신청자격: 선정 아동의 사례 관리가 가능한 아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5440421@hanmail.net)
-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발표: 접수 후 4주 이내 선정 여부 발표
- 문의: 02-437-2219

- [이랜드복지재단, SOS위고(WEGO)사업/주거, 생계, 치료, 자립 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 가정
- 지원기준: 지원의 사각지대, 위기상황, 경제상황, 삶의 변화 및 문제해결 가능성
- 신청기간: 상시접수
- 발표기간: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 지원내용: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자립비
- 신청 방법: 여러 가지 홈페이지(everybranch.co.kr) 내 기관 신청 *본인신청불가, 기관(주민센터, 복지관, 센터 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문의: T. 02-2644-0110 / 070-4241-9629

자원 봉사자 모집

▶ 아동방과후교실 '해맑은 교실'
관리센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236-3600

▶ 심리상담센터 '마음모음터' 운영
관리센터: 청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263-1817

▶ 어르신 미용봉사
관리센터: 누리요양원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288-8219

▶ 이, 미용, 말벗 및 정서지원
관리센터: 청춘노인야간보호센터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211-9912

▶ 도시락 배달 및 수거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834-3411

▶ 주간재활프로그램 봉사자
관리센터: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291-0199

▶ 재가노인 식사배달 봉사자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266-476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라움봉사단, 어르신들 위한 이·미용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라움(단장 최은교)은 지난 11일 청주시에 위치한 굿네이버스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최은교 단장은 "이·미용을 마

친 뒤 어르신들이 거울 앞에서 예쁘게 머리손질 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 뿐 아니라 만족감도 느낀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를 통해 즐거운 나눔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움은 올해 10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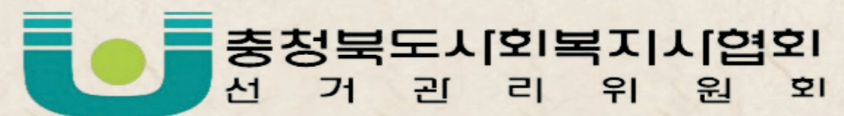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의 가능하다.

제13대 충청북도사회복지사업회장 선거

선거주요일정

구분	일자
선거공고	10.04(수)
선거인명부 열람	10.10(화)~10.31(화)
후보자 등록기간	11.01(수)~11.10(금)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11.06(월) 10시
입후보자 심사 및 확정 선거설명회	11.13(월)~11.17(금) 주중
입후보자 등록공고	11.22(수) 10시
선거운동	11.22(수)~12.05(화)
후보자토론회	11.27(월)~12.01(금) 주중
선거	12.06(수) 09시~1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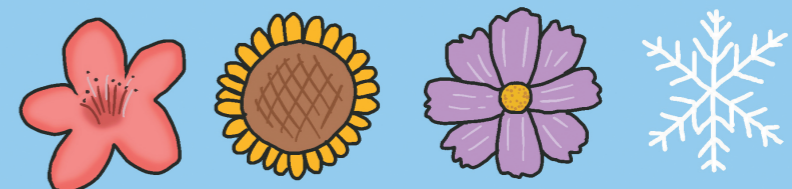


복/지/만/평

꽃 피는 삶

이창신 www.bokmani.com

계절마다 꽃이 피듯



각 시기마다 어울리는 꽃이 핍니다.

